

- 한길연    대하소설에 나타나는 부모-자녀관계 연구 (2)  
           —〈옥원재합기연〉을 통해 본 부성의 새로운 가능성
- 서정자    김말봉의 대중소설 『찔레꽃』의 사상  
           —휘트먼과 아리시마 다케오, 그리고 아나키즘
- 류진희    해방기 여성대중의 부상과 여성봉기의 재현
- 송인화    60년대 여성 정신병의 재현과 히스테리  
           : 젠더권력으로서의 의학지식과 성애화된 ‘내면’
- 임진하    보편을 분유(分有)하는 문학소녀들의 책임기  
           —전혜린의 독서 노트와 베스트셀러 『데미안』의 탄생
- 김미정    국경을 넘는 페미니즘과 ‘얼굴없음’의 정동  
           : 『82년생 김지영』 일본어 번역을 중심으로
- 허민석    탈장소화되는 제주  
           —4.3 다큐멘터리에서 재일제주인 여성의 재현을 중심으로

# 대하소설에 나타나는 부모-자녀관계 연구 (2)

—〈옥원재합기연〉을 통해 본 부성의 새로운 가능성

한길연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목차

- 1 서론
- 2 어머니의 부재 속 아버지의 역할
  - 2.1 자기희생적 자식사랑
  - 2.2 수평지향적 소통과 공감
  - 2.3 일상화된 돌봄과 배려
- 3 ‘부성’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결론을 대신하여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 2017S1A5A2A01026079)

본 논문에서는 18세기에 창작된 <옥원재합기연>의 ‘소송’이라는 인물을 통해 ‘부성’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부성과 모성이 선천적인 것인지 후천적인 것인지 논의가 분분한 요즘, 엄부자모(嚴父慈母)의 통념화된 부모상에서 벗어나 친구 같은 아버지(friendly), 새로운 아버지(new father), 양성적 아버지(androgynous father) 등 자녀양육과 교육에 적극적인 자상한 아버지상(intimate fatherhood)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는 부성과 모성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옥원재합기연>의 소송은 종법제도가 공고화된 18세기에 오히려 이러한 새로운 부성상을 이미 구현하고 있기에 의미가 크다.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소송은 아내가 죽은 후 재취까지 마다한 채 자기희생적인 자식사랑을 실천하고, 수평지향적 소통과 공감을 통해 자식과 관계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자식은 물론, 며느리, 손자 등 가족구성원 모두를 손수 돌보고 배려하는 삶이 일상화되어 있다. 이는 소송이 아내가 요절한 뒤 홀로 지내면서 부성으로 모성까지 아우르게 된 특수한 상황에서 기인한다. 그런데 <옥원재합기연>에서는 엄부(嚴父)인 이문정공과 달리 자부(慈父)인 소송을 훨씬 더 비중을 두고 긍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더욱이 당대의 모성에 대한 통념에서 벗어난 여주인공까지 함께 그려냄으로써 <옥원재합기연>에서는 새로운 부모상에 대한 갈망을 여실히 보여준다. 부성과 모성이 ‘완성형’으로 고착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진행형’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는 요즘, <옥원재합기연>은 새로운 부성상을 선취함으로써 맞벌이가정, 이혼가정이 급증하는 오늘날 이상적인 부성상을 정립하는데 큰 발판이 되고 있다.

국문핵심어: 대하소설, 옥원재합기연, 부성, 모성, 새로운 아버지, 자상한 아버지상

## 1 서론

가족은 사회의 기본단위로 부모-자녀 관계는 가족의 실상을 들여다보는 주요한 축이 되며, 특히 부성(fatherhood)과 모성(motherhood)은 가족을 지탱하는 근간을 이룬다. 부성과 모성에 대한 개념 및 의미규정은 당대의 가족제도와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환경 및 구조와도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기에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엄부자모(嚴父慈母)라는 전통적 부모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부모상이 부각되고 있다. 이 중 고정되어 있는 듯했던 아버지상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친구 같은 아버지(friendly), 새로운 아버지(new father), 양성적 아버지(androgynous father) 등 자녀에게 친밀감을 보이면서 자녀양육과 교육에 적극적인 자상한 아버지상(intimate fatherhood)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sup>1</sup> 새로운 아버지상의 주요한 특징으로는 자녀양육에 참여하고(nurturing), 자녀를 정서적으로 지지하며(supportive), 자녀와 동료관계를 유지하려는(companionate) 태도를 지닌다고 한다.<sup>2</sup>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부성과 모성이 선천적인 것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유동적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가 정점을 이룬 18세기에 고전 대하소설에서 오늘날 새롭게 부각되는 아버지상이 이미 자리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옥원재합기연>의 ‘소송’을 통해 이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sup>3</sup>

조선후기에 창작된 대하소설 전반에서 대개 엄부자모의 형태로 아버지의 역

---

1 J.H. Pleck, “American Fathering in Historical Perspective”, Ed., M. Kimmel, *Changing Men: New Directions in Research on Men and Masculinity*, NewburyPark: SAGE, 1987; Esther Dermott, *Intimate Fatherhood: A Sociological Analysis*, London·New York: Routledge, 2008.

2 J.H. Pleck, *op.cit.*, pp.351-354.

3 선행연구(이지하, 「여성주체적 소설과 모성이데올로기의 파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9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에서도 소송이라는 인물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송의 부성적 특징을 모성과의 비교 하에 면밀히 고찰함으로써 대안적 부성으로서의 의미를 확실히 살펴보기로 한다.

할과 어머니의 역할은 고정된 양상을 보인다. 현우 및 인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sup>4</sup> 현명한 부모의 경우 대개 정형화된 특징을 보인다. 선행연구에서도 자식을 훈계할 때 부모의 모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임을 논의한 바 있다. 아버지는 ‘내면의 갑옷’을 입은 ‘강한 아버지상’을 강조하는 가운데 수직적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태장(笞杖) 등의 폭력적 방법을 주로 동원한다. 반면, 어머니는 돌봄과 배려에 기반한 ‘자상한 어머니상’이 강조되는 가운데 수평적 관계에서 자식들과 상호 소통적인 모습을 보이며, 비폭력적 계도 양상을 보인다. 이에 따라 대하소설에서 부성은 수직적·위계적·권위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반면, 모성은 수평적·민주적·합리적 성향을 보이게 된다.<sup>5</sup>

이런 관계구도 하에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서 윤희유처럼 중재역할을 하는 어머니의 부재는 아버지와 자식 간의 갈등으로 증폭되는 양상이 대하소설에서 종종 나타난다. 어머니가 부재한 가운데 〈유효공선행록〉에서는 아버지의 폭력성으로 인해<sup>6</sup> 〈보은기우록〉에서는 문제적 부성으로 인해<sup>7</sup> 자식이 고난을 겪는다. 대하소설뿐 아니라 〈장화홍련전〉 등의 단편소설에서도 어머니의 부재는 자식들

- 
- 4 박영희, 「장편가문소설에 나타난 모(母)의 성격과 의미」, 『한국고전소설과 서사문학』 상(양포 이상택교수 환갑기념논총), 집문당, 1998; 이은경, 「〈완월회맹연〉에 나타난 어머니의 양상과 의미」, 『개신어문연구』 제21권, 개신어문학회, 2004; 한길연, 「장편고전소설에 나타나는 어머니의 존재방식과 모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4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정선희, 「17·18세기 국문장편소설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연구」, 『한국고전연구』 제21권,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김서윤, 「〈완월회맹연〉에 나타난 천상계의 특징과 의미: 모자 관계 형상화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68권, 한민족어문학회, 2014; 김서윤, 「〈엄씨효문청행록〉의 모자 관계 형상화 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제41권, 한국고소설학회, 2016; 탁원정, 「국문장편소설 〈완월회맹연〉 속 아버지 형상과 그 의미—자식의 혼사 과정에서 보이는 성향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45권,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 5 한길연, 「대하소설에 나타나는 부모-자녀 관계 연구—잘못된 자식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제189권, 국어국문학회, 2019.
- 6 조혜란,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가장권(家長權) 행사의 문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30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5; 이지영, 「조선시대 장편한글소설에 나타난 ‘못된 아버지’와 ‘효자 아들’의 갈등」, 『고소설연구』 제40권, 한국고소설학회, 2015.
- 7 홍현성, 「〈보은기우록〉 속 아버지 모습과 문제적 부성(父性)의 의미」, 『돈암어문학』 제32권, 돈암어문학회, 2017.

이 고난을 겪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sup>8</sup>

그런데, 〈옥원재합기연〉에서는 어머니의 부재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자 사이가 매우 조화롭고 화평하기에 주목을 요한다. 소송은 본인이 일찍 어머니를 잃고 홀로 된 부친 밑에서 자라난 인물로, 아내마저 요절하기에 그 아들 소세경과 갓난아기 때부터 단 둘이 지낸다. 그럼에도 부자 갈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소세경의 극진한 효심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무엇보다도 소송의 자애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소송은 여타의 대하소설에서 볼 수 있는 아버지와 판이한 모습을 보여준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에게 하는 것처럼 자기희생적 사랑을 보여주고, 수평적이며 관계지향적 소통과 공감을 중시하며, 돌봄과 배려가 일상화되어 있는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간 〈옥원재합기연〉은 내면에 대한 탐구, 상대주의적 세계관, 타자지향의 서사 등에 관한 심도있는 내용으로 인해 18세기 대하소설 중 문제의식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평가받았다.<sup>9</sup> ‘부성’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옥원재합기연〉의 문제작으로서의 위상은 더욱 심화되며, 소설사적으로도 18세기에 이미 통념화된 틀을 깨고 새로운 부성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sup>10</sup>

---

8 물론 단편소설 중 〈심청전〉의 경우에는 심봉사가 아내가 죽고 난 뒤 홀로 딸 심청을 키우는 대목에서 자상한 아버지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데 심청이 성장한 뒤에는 오히려 심청이 부친 심봉사를 봉양하면서 중국에는 부친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까지 한다. 〈심청전〉에서도 결국 어머니의 부재는 자식의 고통으로 귀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9 양민정, 「18세기 후반 대하장편가문소설의 한 유형적 특징—〈옥원재합기연〉, 〈옥원전해〉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제5권, 일지사, 1994; 정병설, 「〈옥원재합기연〉의 여성소설적 성격」, 『한국문화』 제21권,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8; 이지하, 「〈옥원재합기연〉 연작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1; 엄기영, 「〈옥원재합기연〉의 작품세계와 연작관계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1; 최호석, 「〈옥원재합기연〉에 나타난 윤리적 갈등」, 『고소설연구』 제15권, 한국고소설학회, 2003; 한길연, 「대하소설의 의식성향과 향유층위에 관한 연구—〈창란호연록〉·〈옥원재합기연〉·〈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한길연, 「18세기 문제작 〈옥원재합기연〉 연작의 재해석—‘타자의 서사’와 ‘포월의 미학’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제48권, 한국고전문학회, 2015.

10 규장각본 〈옥원재합기연〉 21권 21책(『필사본고전소설전집』 27-30(김기동 편), 아세아문화사, 1980)을 대상으로 한다.

## 2 어머니의 부재 속 아버지의 역할

소송은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단 둘이 30여 년을 살았고, 이후 자신의 아내 경부인이 소세경을 낳고 산후병으로 죽게 됨으로써 그 자신이 아들 소세경과 또 단 둘이 지내게 된다. 2대에 걸쳐 어머니 없이 부자가 함께 사는 양상이 펼쳐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소송과 소세경의 부자 사이는 매우 화평하고 거의 갈등이 벌어지지 않는다. “턴디 스이의 뉘 부지 업스리오모는 소공의 주인과 공주의 대효는 주고로 혼치 아니터라.”<sup>11</sup>라는 서술자의 평가대로 이는 소송의 자애와 소세경의 대효 때문인데, 특히 소송의 자애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소송은 자기희생을 통해 자식사랑을 실천하고, 일방적 권위로서가 아니라 소통과 공감으로 자식과 관계를 맺으며, 자식 및 며느리 등에 대한 돌봄과 배려가 일상화되어 있는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2.1 자기희생적 자식사랑

소송은 대하소설 속 일반적인 아버지와는 달리 자식을 위해 자신의 생리적 욕구 까지도 포기하는 희생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아내 경부인이 산후통으로 죽은 뒤 갓난아기인 소세경을 “친히 보육하여 주모를 겸함”<sup>12</sup>여 지극정성으로 키워낸다. 소송이 전혀 재취할 마음을 두지 않자 일가친척이 자주 이를 권한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단호히 거절한다.

“세간의 목강의 인조하미 다시 잇기 어려오니 만일 불행하여 민모의 포함과 왕모의 불인함 그릇면 나의 겨유 어든 일지 었디 위티치 아니리오. 맛당이 당성함을 기드려 턱부하여 가스를 속탁하고 당뵈 일심 독거홀의 업스니 필경 혼 편방을 두리라.” 하니 모다 대쇼 왈 “장년의 독거홀

---

11 <옥원재합기연> 1권. 띄어쓰기·문장부호는 필자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부여한 것으로 이하 동일하다.

12 <옥원재합기연> 1권.

고 노이기지 하니 노당익장이로다.” 공이 답왈 “그러치 아니하니 칠십의 부인이 아니면 노인이 불안이라 하니 노리의 괴거를 부탁하 리 업스면 내 아히 외로이 노부를 권년하매 기신이 불평홀디라 쇼희를 두어 써 내 몸을 더더 양식게 하고 으즈로 하여곰 편히 좀자미 도티 아니라.” (《옥원재합기연》 1권)

자신이 재취한 여자가 목강(穆姜)과 같이 인자한 인물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민손(閔損)의 어머니와 왕상(王祥)의 어머니와 같이 포학하고 불인하다면 자신이 겨우 얻은 아들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며, 아들이 장성해 가정을 차리게 되면 그때 서야 첩을 두겠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장년에 독거(獨居)하고 노년에 첩을 얻는다는 말에 웃지만, 소송은 자신이 노년에 첩을 두려는 이유는 독자인 아들이 늙은 아버지를 봉양하느라 힘들 것이기에 편케 하려는 것이라고 답변한다.

이후 소송은 아들 소세경이 청년이 될 때까지 홀로 지낸다. 그런데, 소세경이 약혼녀인 이현영이 자신 때문에 죽었다고 잘못 알고 평생 홀로 지내겠다는 결심을 밝힌 뒤 부친에게 재혼하여 후사를 이으라고 간청함으로써 소송은 다시 재취를 강요당하는 입장에 놓인다. 이때 소송은 소세경에게 다음과 같이 자신의 마음을 토로한다.

“니 여모를 상홀 때 오히려 년괴 스십이 못하니 맛당이 신취하여 종소를 널니고 가소를 의탁홀 거시로되 (….) 잇는 자식을 업시하고 업는 자식을 구하미라. 뜻이 그런 고로 취치 아니하여 십스 년을 견디어시니 노뷔 실노 부인을 슈절하미 아니라 널노써 왕상의 근심을 어더 통약한미이 보전치 못홀가 하미라. 이제 궁지소치로 뜻을 고쳐 비록 취하나 네져픈 어미를 섬겨 형혀 목강을 만나디 못흔즉 내 천고의 혼이 되기는 니르디말고 선인의 니르신 적불선이오 또 이슈의 쇼아를 구하미 이곳 선군의 니르신 적악이라.” (《옥원재합기연》 2권)

자신이 사십이 못 되어 홀아비가 되었을 때 새로 아내를 얻어 종사를 넓히고 가사를 의탁할 것이 마땅하였겠지만 다른 자식을 구하다가 있는 자식을 보전하지 못



할까 홀로 지낸 사연을 말해준다. 즉 14년을 홀로 견딘 것은 죽은 부인을 위해 수절한 것이 아니라 소세경에게 왕상의 근심을 끼치지 않기 위한 것이었음을 일러 준다. 그리고는 비록 지금 재취한다 해도 소세경이 젊은 어머니를 섬기는 것이 힘들 뿐더러 목강과 같은 인자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천고의 한이 될 것이고, 자신이 많은 나이로 젊은 첩을 들이는 것도 적악이라면서 불가하다고 말한다. 소송은 이후 자신의 말대로 아들을 장가보내고 손자손녀까지 얻은 뒤에야 며느리의 노고를 덜어주기 위해 나이 든 첩을 얻는다.

대하소설을 비롯한 대개의 고전소설에서 남성이 아내가 죽은 뒤에 자식을 위해 홀로 지내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배우자가 죽은 뒤에 홀로 자식을 키워내는 사례는 여성의 경우에 주로 해당하고, 남성의 경우에는 가사를 돌볼 아내가 필요하다는 명목 하에 곧바로 재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당대 통념이었기에 결코 흉이 되는 일이 아니었고 당연한 일이라 여겼다. 그런데 이러한 당대 풍토에서도 생리적 욕구까지 참아가며 아들 하나를 잘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수십 년을 홀로 지낸 것은 매우 예외적인 일로, 소송의 자식을 위한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듯한 양상이 아버지인 소송에게서 뚜렷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 2.2 수평지향적 소통과 공감

대하소설에서 대개 아버지는 수직적 관계 속에서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거나 훈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sup>13</sup> 이와 달리 소송은 아들, 더 나아가 며느리에 대해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간의 소통과 공감을 중시한다.<sup>14</sup>

먼저 아들인 소세경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들의 입장을 십분 이해해주고 하나하나 깨우쳐주려 하며 자신의 입장만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애쓴다. 대개 자식은 부친에게는 자세한 속사정을 얘기하지 않고 모친과 상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세경의 경우에는 자상한 아버지가

---

13 한길연, 앞의 글(2019) 참조.

14 며느리의 경우도 넓게 보면 자식과 같은 항렬에 있기에 함께 다루기로 한다.

자 편부인 소송에게 항상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한다.

소세경이 약혼녀 이현영이 자신에 대한 신의를 지키다가 죽었다고 오해하고는 자신도 신의를 지키기 위해 독신으로 지내겠다고 말했을 때, 앞서 살펴본 바 있듯 소송은 소세경을 위해 재취하지 않고 수십 년을 홀로 지내왔던 사연을 얘기해 주면서 삼대독자로 이어진 집안에서 그것이 불가한 이유를 조목조목 이야기해준다. 이에 소세경은 부친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이 비록 신부를 맞이한다 하더라도 이현영을 원비로 하고 신부를 차비로 삼아 이현영에 대한 신의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한다. 소송은 아들의 입장을 생각해 이를 인정해 주고 이현영을 위해 슬퍼하는 소세경을 달래준다.

“슈연이나 녀연이 거절호오든 인정의 춤디 못할 듯호오니 비록 다른 날  
취호여도 몬져 품호은 말슴긋치 녀좌를 마자 도라와 복을 괴년을 호여  
임의 취호 바로 호여 안해 이셔도 니시를 원비를 삼고 즈식이 이셔도 한  
가지로 어미로 호게 가부를 명교호시를 브라나이다.” 인호여 함누호여  
옥안의 도화훈식이 주연호니 공이 크게 익셔호여 당탄희허 왈 “여언이  
절절유리호여 미진호미 업스니 노뵈 엇디 가치 아니타 호리오. 므릇 삼  
년 안흔 유동심상이라 초친호는 네 가치 아니미 이시리오. 식자의 의논  
호여 시비를 호디 아니리니 군상긋 알외고 녀좌를 영귀호물 친영 일테  
로 호여 성복절제호를 취호 바긋치 호여 타인을 취호매 지취로 호여 니  
시를 원비로 호미 내 뜻이라. 이 쏘 천고미던이니 녀의를 저기 갑호미  
되디 아니라.” 심이 비샤호나 못춤니 그 빙심녘절을 닛디 못호여 승안  
의 화식 분이오 천단비호니 구독이 어려여시를 보디 아녀 알디니 (...)  
(〈옥원재합기연〉 4권)

소세경은 부친의 간절한 깨우침에 비록 독거하겠다는 마음은 거두지만 이현영의 영좌(靈座)를 맞이하여 원비를 취한 것으로 하고 이후 다른 여성을 재취로 맞이할 것이라며 울면서 간청한다. 이에 소송은 소세경을 불쌍히 여겨 자신의 뜻도 이와 같다면 기꺼이 이를 허락해준다. 부자 사이의 대화 장면이 몇 쪽에 걸쳐 상세하게 서술되는 가운데, 부친의 일방적인 훈계가 아니라 부자간에 서로의 입장을 공

감하면서 의견을 조율해나가는 양상이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기실 대하소설에서 아들이 여자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 대부분 부친이 태장을 하는 등 폭력적 방법으로 훈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세경은 이미 부모끼리 혼약을 정한 이현영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것이기에 불고이취(不告而娶)하는 경우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죽은 약혼녀를 위해 수절하면서 다른 여자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부친에게 말하는 것은 당대의 관점에서는 매우 이례적이며 불효에 가까운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소송은 소세경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차근차근 타일러서 결국 신부를 맞이하더라도 이현영을 원비로, 신부를 차비로 하는 타협점을 찾아내게 된다.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자식과 수평적 관계에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양상은 소세경이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광경에서도 잘 드러난다. 장원급제한 뒤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온 날에 “집슈무빅히고 접면교구혀<sup>15</sup> 즉 아들의 손을 잡고 등을 두드리며 얼굴을 맞대고 입을 맞추면서 그 기쁜 마음을 한껏 표현한다. 이는 여타의 대하소설에서 자식의 과거급제 날에도 아버지로서의 근엄함을 지키는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공무 끝에 오랜만에 소세경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부, 자, 손 삼대가 서로를 품에 안고 자는 모습에서도 부자간에 격의 없는 양상이 잘 드러난다.

밤이 깊흐매 부인과 향희 퇴이입니히고 공이 상의 나아가매 한님이 시  
침홀시 부지 혼 상의 올나 공은 한님을 어르문져 회둥의 너허 무익히미  
부즈의 쓰디 혼가지로 강보실유혀엿던 씨 갖고 봉희 쏘흔 부친의게 품  
기여 허리를 안고 등을 어르문져 부즈의 정이 권권근곤혀여 (...) (〈옥  
원재합기연〉 16권)

위의 장면은 오랜만에 만난 소송, 소세경, 소봉희 삼대가 함께 잠자리에 들 때의 풍경이다. 소송이 아들 소세경을 품에 안아 갓난아기를 다루듯이 어루만지고, 소세경도 그 아들 소봉희를 품에 안고 등을 어루만지며 지극한 정을 표현한다. 대

---

15 〈옥원재합기연〉 16권.

하소설에서 모자, 모녀지간에는 다 큰 자식들이 어머니의 품을 찾고 젖을 만지기도 하는 등 스스럼없이 애정을 표현하기도 하지만,<sup>16</sup> 부자, 부녀지간에는 살뜰하게 애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 소송과 소세경 부자,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소세경과 소봉희 부자 사이에 부친으로서의 권위와 위엄을 내세우기보다는 격의 없이 자식에 대한 친밀감을 마음껏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평지향적 공감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며느리인 이현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현영은 부친의 누덕(累德)이 세상에 다 알려졌을 뿐 아니라 부친이 중병까지 든 사실을 알고 식음을 전폐한 채 누워있게 된다. 소송은 이러한 이현영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다가 결국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현영에게 다음과 같이 빌면서 설득한다.

공 왈 “이 아니라 내 네게 빌고져 흐는 배 잇노라.” 쇼제 황공하여 니러 절하고 업드여 히음업슨 빵테 싸히 스몯추니 공이 참셔달도하여 한삼을 드러 낭항누를 제어하고 닐오디 “이 다른 일이 아니라 오문이 불 헝하여 주소로 부인니 하슈하시 니 업서 노뷔 구세의 선비를 여히오니 혈혈고고하여 디보홀 길이 업스디 (...) 평심의 지통이 늑아의 미치고 고어의 설오미 심곡의 응결하였더니 경의 나매 아비를 니오디 더욱 통 약한 배라. 겨유 삼세의 실모하니 (...) 헝뇌 동비하고 견재 막블산비라. (...) 너의 청약하미 슈를 누리디 못홀가 심연 춘빙하미 네 병이 업슨 째 도 내 믄득 의심하고 심경하여 혹자 봉희로써 제 아비 정경을 당홀가 하여 샤스망념이 발하니 가히 실성홀 뜻이 잇는다 라. 네 노부의 여츠한 심 스 를 고견하여 지란을 유전하고 보옥을 심보하여 소시의 화를 더오디 아니하면 엇디 헝심티 아니리오. 일노써 네게 비노라.” 언필의 비블주소승

16 다 큰 자식조차도 어머니의 젖을 만지면서 친밀감을 표현하는 양상이 대하소설에서 종종 등장한다. 일례로 <완월회맹연>에서는 자신의 아내에게는 강고하기만 한 정인광이 결혼 후에도 모친의 젖을 수차례 만지며 애정을 표현하고, 강직한 성품의 조세창도 어린아이같이 모친의 젖을 만지며 모자간에 오랜만에 만난 회포를 푸는 등 서로 간에 격의 없이 애정을 표현하는 양상이 드러난다.

하니 쇼제 크게 놀나며 두리고 감격하고 늦겨 옥제 빵빈의 횡뉴하니 계  
 슈복죄 왈 “불초흔 아히 불혜불민호와 성녀를 디츨히시게 호오니 죄 만  
 스무속이로소이다 (….) 삼가 비박누천을 신보하여 성의를 더으시게 아  
 니하리이다.” (〈옥원재합기연〉 14권)

자신을 혼낼 줄 알았던 시아버지가 자신 앞에서 빌면서 간청하자 이현영이 감격  
 해하는 대목이다. 소송은 자신의 집안에서 여자들이 요절하여 자신이 9세에, 소  
 세경이 3세에 모친을 잃고 평생 동안 설움을 겪었던 내력을 이야기하면서 손자인  
 소봉희마저도 어미를 잃은 지통을 경험하게 해서는 안 되니 이현영에게 몸을 잘  
 추스르라고 두 번이나 빌면서 간청한다. 이현영이 몸이 약하여 건강할 때도 항상  
 걱정하였는데 이렇게 몸져 누워있으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염려가 된다며  
 소중한 몸을 보호하기를 힘쓰라고 눈물을 머금고 소송이 애원하자, 이현영도 감  
 동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시아버지의 말을 따르게 된다.

대하소설에서 시아버지가 며느리 앞에서 비는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다. 〈유씨삼대록〉에서 자신의 모친을 살려내고 개과시킨 며느리 유현영 앞에서  
 절을 한 시아버지 양계성의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식음을 전폐한 며느리를 설득  
 하기 위해 빌면서 간청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는 소송이 며느리를 대할 때도  
 일방적인 수직적 관계에서의 훈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서 상대방의 감정에  
 호소하면서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애쓰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소송은 아들, 며느리에게 수직적 위치에서 일방적 권위를 내세우기  
 보다는 수평지향적 관계에서 서로간의 공감과 소통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 이에 따라 친밀감을 중시하는 관계지향적 구도가 부모자식 간에 형성되고  
 있다.

### 2.3 일상화된 돌봄과 배려

대부분의 대하소설에서 공적 임무로 바쁜 아버지 대신 어머니가 자식들을 보살  
 피고 배려하는 일을 도맡는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옥원재합기연〉에서는 아버  
 지인 소송이 어머니를 대신하여 자식을 보살피고 배려하는 일이 일상사가 되었

다고 할 만큼 이러한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자식은 물론 며느리, 손자 등 가족구성원을 살뜰히 돌보고 배려하는 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소송은 자신의 아들 소세경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모의 역할까지 겸하면서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으며, 이후 손자가 태어났을 때도 출산 후 몸이 약한 며느리와 공부하기에 바쁜 아들을 대신하여 손자 돌보기를 자처한다.

공이 즉시 명하여 왈 “이는 헛갓 내 집의 범상한 경식 아니오 나라히 명상이 될디라. 봉이 오매 성인이 오므로써 일흠히리니 명을 봉희라 하고 조를 님성이라 하라.”(…) 공이 만안희괴로 좌슈우옹하여 깃브물 스양치 아니코 이후로 공이 주야 님실을 썬나디 아나 강보를 친히 훃양하니 심이 훃 슈고로오시를 간흔즉 공이 쇼왈 “너브터 이러툷 길너시니 심소치 아니니 슈고롭디 아니코 도타.” 헛더라. (<옥원재합기연> 6권)

위의 대목은 손자가 태어났을 때의 장면으로, 소송은 귀한 손자가 태어난 것을 기뻐하며 주야로 내실을 떠나지 않고 강보아기를 손수 양육하기를 힘쓴다.<sup>17</sup> 소세경이 부친이 힘드실 것을 염려하자 소송은 자신이 소세경을 어렸을 때부터 손수 다 길렀기에 아기 돌보는 것이 익숙하고 수고롭지 않다고 말하면서 손자 돌보기를 자임한다. 자식을 평생 손수 키웠음은 물론 그 손자까지 직접 돌보고 있는 것이다. 이현영의 유모인 설과가 있음에도 손자 돌보기에 적극적인 것은 평소 소송이 돌봄과 배려가 일상화된 인물임을 잘 보여준다.

한편, 소송은 며느리도 지극정성으로 돌본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 며느리가 고생하는 것에 하나하나 마음 쓰며 위로해 주고 조금이라도 일을 덜어주려 애쓴다.

일일의 심이 셔속을 거두고 그 갑술 거두어 도라와 덩둥의 두고 다시 가닌디라. 쇼제 즉시 님려 단상을 님의 츄고 초리를 쓰어 썬가온대셔 이삭을 즐나 손으로 부빅여 부비를 양하여 벳출 향하여 므르기를 위하여 널

17 소송은 자신의 첩인 향씨를 얻을 때까지 손자를 손수 돌본다.

고 뷔를 가져 정히 쓰러 거두더니 공이 다드라 보고 크게 이석하여 옥슈를 잡아 곧오되 “네 주립옥슈라 엇디 이를 홀다. 인간의 영환귀슈로 일도의 빈 도대의 지어미 되매 농가산업의 마디 못허거니와 현부는 청약허미 뉴별허니 엇디 능히 이그리오.” 인하여 옥슈를 노치 아나 잇그러당의 올라 익모허를 마디 아니홀시 그 손을 보니 섬섬흔 옥제 더를 씨흐며 속을 부뵈여 낫낫치 부르터 상허엿는디라. 공이 심통빈툭하여 참연이 같오되 “이 다 노부의 괴라 널로 허여곰 이 비상한 괴고롤 허는도다.” 참연허여 이그디 못허니 ( … ) “근넉히 저러고 그을 괴운이 통숙허니 사릅이 두 썩 먹으미 족허니 오션을 말나.” (〈옥원재합기연〉 5권)

소송은 며느리가 손수 곡식의 이삭을 자르고 껍질을 벗기는 일까지 도맡아하는 것을 보고 그 손을 잡고 슬피하며 위로해 준다. 이현영이 명문거족으로 유약한 몸을 이끌고 힘들게 농사일을 맡게 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며느리의 손을 이끌어 당에 오르게 함으로써 잠시나마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곡식을 비비느라 섬섬옥수가 다 부르튼 모습을 보고 슬피하며 자신 때문에 이렇듯 고생한다며 며느리를 위로한다. 그리고 소송은 며느리가 어려운 살림에 세 끼 밥을 짓느라 고생할 것을 걱정하여 해가 짧아지는 가을에 두 끼 밥으로 충분하니 점심은 하지 말라면서 며느리의 일을 덜어주려 애쓴다. 소소한 일상의 일까지 며느리를 위해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며느리가 몸져누워 밥을 먹지 않으려 하자 며느리가 먹지 않으면 자신도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며느리로 하여금 밥을 먹도록 권유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며느리 이현영이 스스로 밥을 먹기를 바라고 묵묵히 있었지만, 계속해서 며느리가 식음을 전폐하려 하자 소송이 나서서 밥먹기를 권유한 것이다. 이에 이현영이 애써 일어나 밥을 먹게 된다.

한편, 소송은 며느리가 중병에 걸리자 도축기원하기까지 한다.

일일은 쇼제 더욱 창황초분하여 토혈 수즈완의 혼절블소허니 봉희 또 가슴의 업드여 혼미허엿는디라. 공이 탁급하여 후원의 등축을 붉히고 분향도툭홀시 글을 지어 축화의 슬오고 오래 업드엿더니 신호의 쇼제

홀연 회소하여 좌우더러 날오디 “반드시 디인이 후원의셔 괴롭히는 일이 잇도다. 내 근일의 혼비백산하여 삼흔과 칠백이 표탕하니 (...) 명왕이 동가하니 난거 지전하고 속계 직후하여 절월이 압흘 인도하며 왕재 농봉거 우히 안갓다가 날을 불너 술위에 올너 무이하며 스스로 왕부 문정공이로라 하시고 니르샤디 ‘너의 구시 날을 편지로 청하여시니 네 집의 가리라.’ 하시더니 과연 이곳의 니르니 존귀 친히 마즈샤 스테의 네를 헹고시고 별니를 니르시며 피치 인사하샤 (...) 선죄 니르샤디 ‘현윤이 지효하고 너의 구부 성심대덕을 말미아마 여뵈 병이 쾌차하여 연년익슈하리라.’ 하시고 부공이 쏘흔 괴휘 강건하시되 (...) 내 막혔다가 썩매 좁자더 니 고티여 쏘흔 정신이 소상하여 심고 진뎡하이미 전일과 닮도도다.” 하니 그 말슴이 뇨료하여 괴운이 퍽퍽하미 우환 후 처엄이라. (...) 향시 공이 후원의 괴도하물 아난디라 (...) 밧비 공의게 알외니 시시의 소공이 목티둥조하고 분향청소하여 표연하미 비홀 디 업더니 이 말을 드르매 대열하여 전도히 니르러 보니 거지여상하디라. 깃브미 극하여 여취약몽하니 손을 잡고 등을 어루만져 테시 년낙하여 왈 “네 거동이 응당 나온가 시브니 일노브터 노뵈 살니로다.” 쇼제 복디계슈하여 테읍사은하며 (...) 공의 환턴희디하든 일필난기라. (《옥원재합기연》 14권)

자신의 부친이 그간 쌓은 죄로 말미암아 극도로 위태롭게 된 상황을 짐작한 이현영은 자신이 가 볼 수도 없는 처지에서 괴로워하다가 피를 가득 토하고 기절한다. 이에 소송이 후원에 등축을 밝히고 분향도축하자, 이현영이 깨어나게 된다. 이현영은 기절한 사이 저승으로 가서 돌아가신 조부 이문정공을 만나서는, 이현영의 시아버지가 간절히 기도를 하기에 자신이 찾아왔다고 하면서 그 시아버지의 정성으로 이현영이 낮게 될 것이고 이현영의 아버지도 그 자식들의 효성 때문에 쾌차할 것이라는 조부의 말을 듣고 깨어난다. 소송의 첩 향씨가 이현영이 살아난 사실을 알리자 분향도축하던 소송은 정신없이 달려와 이현영이 깨어난 것을 보고 꿈속의 일인양 기뻐하며 이현영의 등을 어루만지고 눈물을 흘린다. 이현영도 시아버지의 은혜에 감격하게 된다.



대부분의 대하소설에서 자식 혹은 며느리가 부모 혹은 시부모를 위해 도축 기원하는 경우는 흔하지만 그 역은 거의 드물다. 간혹 시부모가 며느리를 위해 기도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며느리가 깨어난 것을 보고 전지도지하며 달려와 그 등을 어루만지고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기뻐하는 양상은 찾아보기 힘들다. 소송에게는 엄격하고 권위적이기보다는 자상하고 다정다감한 시아버지의 모습이 뚜렷이 나타난다. 이는 곧 돌봄과 배려를 실천하는 모습과 직결되고 있다.

이처럼, 〈옥원재합기연〉의 소송은 가족을 보살피고 배려하는 모습이 일상화되어 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은 물론, 손자, 며느리에 이르기까지 가족구성원 전체에 대해 세심하게 마음 쓰듯, 돌봄과 배려를 실천하는 양상이 작품 곳곳에 형상화되어 있는 것이다.

### 3 ‘부성’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결론을 대신하여

부성과 모성은 선천적인 것인지 후천적인 것인지는 아직까지도 논란거리이다. 남녀간에 생물학적 특징이 다른 만큼 어느 정도의 생득적 측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사회제도 및 권력구도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현재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요소로 구성되는 헤게모니적 남성성(hegemonic masculinity)을 축으로 ‘남성에 대한 여성의 예속’과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우월성’의 권력화된 젠더 관계 속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이 구축되고 재생산된다는 논의대로,<sup>18</sup> 부성과 모성 역시도 권력화된 젠더 관계 속에 놓이게 된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강요된 희생과 노동을 모성성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신화처럼 여성에게 부여하는 것에 대한 거부의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sup>19</sup>

하지만 최근 관계지향적이고 돌봄지향적 가치가 중시되는 사회에서 모성성은 새로운 가치를 인정받으며 대안적 리더십으로서까지 주목받고 있다. 아이들

---

18 R. W. Connel, *Masculinity and Power*, Oxford: Blackwell, 1989; Haywood & Ghail, *Men and Masculinities: Theory, Research and Social Practice*, Buckingham: Open University, 2003.

19 아드리엔 리치, 김인성 역,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 모성의 신화에 대한 반성』, 평민사, 1996; 재클린 로즈, 김영아 역, 『승배와 혐오: 모성이라는 신화에 대하여』, 창비, 2020.

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활동과 관련한 ‘모성적 사유(Maternal Thinking)’는 비 폭력적 이성과 평화의 중재로서의 의미가 있고,<sup>20</sup> 돌봄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하여 경쟁과 생산을 관장하는 아버지의 질서를 넘어서서 관계와 상호의존성의 연결성을 중시하는 어머니의 질서가 중요하다고 논의되고 있다.<sup>21</sup> 권력의 우위에 있는 듯하지만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 하에 내면의 갑옷을 입은 채 권위적이고 일방적이며 폭압적인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소외당하는 부성의 패러독스를 경험하게 되며,<sup>22</sup> 오늘날 이러한 강압적인 아버지상은 더욱 빛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친구와 같은 자상한 아버지(friendly)의 출현을 통해 부성에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sup>23</sup> 한국사회에서도 신자유주의가 강화되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등의 구조적 변동과 관련하여 아버지가 ‘돌보미’의 역할을 하며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양상이 강화되고 있다.<sup>24</sup> 보살핌의 가치에 기초한 이러한 부성담론을 확장시켜 혈연관계를 넘어서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도와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만큼,<sup>25</sup> 현재 새로운 부성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들은 부성과 모성이 이분법적으로 엄격하게 구획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제도적·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모하는 유동적인 것임을 보여준다. 부성과 모성은 ‘완결형’으로

20 사라 러디, 이해정 역, 『모성적 사유: 전쟁과 평화의 정치학』, 철학과 실천사, 2002.

21 조한혜정, 「여성 정책의 실질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론」, 『한국 여성 정책의 뉴 패러다임 정립』, 여성부, 2004; 조형, 「여성주의 가치와 모성리더십」,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22 루이지 조야, 이은정 역, 『아버지란 무엇인가』, 르네상스, 2009.

23 J.H. Pleck, *op.cit.*, pp.351-355; Esther Dermott, *op.cit.*, pp.1-160.

24 조윤경, 「‘아버지 자녀 양육서’에 내재한 젠더 질서-‘아버지됨’과 ‘근대적 남성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제22권, 부산대 여성연구소, 2012; 조윤경,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동과 아버지 양육의 변화」, 『한국융합인문학』 제2권 1호, 한국융합인문학회, 2014; 나성은,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신 도구적’ 부성의 구성」,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14; 김미라, 「TV매체에 재현된 새로운 남성성(masculinity)과 그 한계—주말 예능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한국콘텐츠학회, 2014.

25 이동옥, 「아버지 양육 담론의 한계와 대안적 부성」, 『젠더와 문화』 제7권 2호,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14.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바람직한 이상형을 찾아가는 ‘진행형’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오늘날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18세기 대하소설인 〈옥원재합기연〉은 ‘소송’이라는 인물을 통해 부성의 새로운 가능성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앞서 〈옥원재합기연〉에서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수평지향적 공감과 소통을 중시하며, 돌봄과 배려가 일상화된 소송의 모습을 통해 새로운 아버지상을 선보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소송의 모습은 대개의 대하소설에서 나타나는 권위적이고 일방적이며 돌봄과 배려에는 일정한 거리를 둔 아버지상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물론 대하소설에서도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이 부분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창란호연록〉에서 아픈 아내 대신 한 달간 조산아인 아들을 품에 품어 살려낸 장희, 〈쌍천기봉〉에서 어머니와 몇 년간 이별하게 된 어린 아들을 정성으로 보살피는 이관성, 〈조씨삼대록〉에서 잘못된 아들을 태장한 뒤 아픈 상처를 보듬어주거나 딸에 대한 애정으로 직접 학문을 가르쳐주는 조성 등 다른 작품에서도 부분적으로 자상한 아버지상이 나타난다.<sup>26</sup> 그럼에도 작품 전체에 걸쳐 소송과 같이 일관되게 자식에 대해 세심한 관심과 살뜰한 보살핌 그리고 수평지향적인 공감과 소통을 보여주는 아버지상을 찾기는 쉽지 않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조선후기에는 자상한 아버지상이 나타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었다. 백광훈(白光勳)의 『옥봉집(玉峯集)』, 유성룡(柳成龍)의 『서애집(西厓集)』, 이문건(李文健)의 『양아록(養兒錄)』 등에서 볼 수 있듯, 조선후기와는 달리 종법에 기초한 남성 친족 중심의 가족체계가 성립되기 이전인 조선중기에는 종법 이데올로기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깊이 개입하는 자상한 아버지상의 모습이 종종 나타나곤 하였다.<sup>27</sup> 그런데 종법 제도가 확고해지면서 부모자식간에 엄격한 수직관계가 중시되

26 이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도 논의한 바 있다.(이지하, 앞의 글(2004); 정선희, 앞의 글(2010))

27 박미해, 「16세기 양반가의 가족관계와 가부장권」, 『고문서연구』 제21권, 2002; 조윤경, 「조선중기 재지사족 가문 아버지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검토」, 『인문학연구』 제82권,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는 조선후기에는 엄부(嚴父)의 모습이 강화되며 자상한 아버지상이 흔치 않게 된다. 물론 그럼에도 미시적으로 살펴보면 조선후기에도 자상한 아버지상을 간간히 찾아볼 수 있다. 자식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제문 등을 통해 애뜻한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한 김수항(金壽恒), 김창협(金昌協),<sup>28</sup> 어린 자녀를 위한 자장가를 한시로 담아낸 심익운(沈翼雲), 아픈 자녀의 병상 일지를 『흠영(欽英)』에 적은 유만주(兪挽住) 등을 통해 이를 살펴볼 수 있다.<sup>29</sup> 조선후기에도 자상한 아버상을 단편적으로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옥원재합기연>의 소송은 이러한 자상한 아버지의 단편적 모습을 총집결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조선후기 엄부의 모습이 강화되는 시기에 자부(慈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구현하고 있기에 의미가 크다.

기실 <옥원재합기연>에서 소송과 같은 아버지상이 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인물 설정 방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소송은 2대에 걸쳐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가 일찍 죽은 경험을 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소송의 아버지가 소송의 어머니를 대신하여 소송을 홀로 키우면서 자모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을 것이고 소송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이를 직간접적으로 배웠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sup>30</sup>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요절하자 이미 체화한 아버지상을 실천에 옮겨 죽은 아내를 대신하여 자식에게 자모의 역할까지 병행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31</sup> 즉 대부분의 대하소설에서 주로 어머니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아버지인

28 제문에 관한 내용은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4, 보고서, 2006;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8, 보고서, 2010; 강혜선, 「사대부 남성의 눈으로 본 17세기 여성의 삶과 생활, 그 정형성과 다양성: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보고서, 2006)」, 『한국문화연구』 제 11권,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6을 참조하였다.

29 심익운과 유만주에 관한 내용은 김정미·김은주, 「조선후기 아버지의 자녀양육과정을 통해 본 돌봄 담론 분석: 한문학 사료를 중심으로」, 『교육사상연구』 제34권 3호, 한국교육사상학회, 2020을 참조하였다.

30 이에 관한 내용은 작품에서 압축적으로 서술되어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인물들간의 관계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31 소송의 자상한 아버지상은 그 자식인 소세경으로까지 일정 정도 이어지고 있다. 소세경은 소송만큼 전경화되어 새로운 부성상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자신의 자식과 부인에 대해 정성스러운 돌봄을 실천하는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소송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옥원재합기연〉에서 자부인 소송과 반대되는, 죽어서까지 아들을 매질하는 엄부의 대명사로서의 이문정공<sup>32</sup>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당대의 아버지상으로 소송이 전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코넬의 견해에 따르자면 이문정공은 당대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대표한다면, 소송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주변화된 남성성(marginalized masculinity)을 구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주목해야 할 것은 소송이라는 아버지상을 〈옥원재합기연〉에서는 이문정공보다 훨씬 더 비중 있게 작품 전체에 걸쳐 형상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이문정공과 같은 폭력적 부친은 이원외와 같은 빗나가고 주눅 든 소인형 아들을 키워냈다면, 소송과 같은 자애로운 부친은 소세경과 같은 야량있고 소신 있는 군자형 인물을 키워낸 것으로 선명하게 대비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작가가 누구를 이상적인 부성상으로 보여주려 했는가를 짐작케 한다. 작품 속에서 지속적으로 비중 있게 등장하며 긍정적인 인물로 격상되고 있는 소송의 모습을 통해 〈옥원재합기연〉에서는 새로운 아버지상을 확실히 각인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것은 당대의 전형적인 어머니상에서 벗어난 여성 주인공도 〈옥원재합기연〉에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주인공 이현영은 자신의 존재로 인해 부모의 과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에 대해 항상 죄책감을 가질 뿐 아니라 친정을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극도로 번민하며 지속적으로 토혈을 계속하는 인물로, 이러한 자기 번민 속에서 자식들이 젖을 달라고 애원해도 외면하고 방치한다. 그렇기에 선행연구에서 이현영은 기존에 희생적인 모성으로 대표되는 자애로운 모성상을 거부함으로써 여성에게 부가된 모성 이데올로기에서 탈피한 인물로 주목받았다.<sup>33</sup> 〈옥원재합기연〉에서는 이처럼 당대에 통념화된 부성과 모성을 벗어나는 인물이 함께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매우 공을 들이고 있다.

〈옥원재합기연〉의 작가로 다양한 인물들을 지목하지만 여성인물이라는 점에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sup>34</sup> “옥원을 지은 직조는 문식과 총명이 진실노 규동

32 저승에 있던 이문정공은 아들의 악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꿈에 아들을 맹타하는 인물로 나온다.

33 이지하, 앞의 글(2004).

34 이광사(李匡師)를 작가로 지목하여 남성작가설을 주장한 논의도 있지만(최길용, 「옥원재합

의 침몰해야 혼갓 무용한 잡저를 기술하고 세상의 쓰이디 못히미 가석가탄이로 다.”<sup>35</sup>라는 필사기대로, 이 작품의 작가는 당대의 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처한 한계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한 인물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옥원재합기연〉을 ‘여성소설’, ‘여성주체적 소설’ 등으로 명명한 선행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sup>36</sup> 이 작품은 남녀에 대한 고착화된 이분법적 시선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작품이다. 따라서 〈옥원재합기연〉의 작가는 당대의 통념을 벗어나는 부성상과 모성상을 함께 그려냄으로써 기존의 전형적인 부모상에서 벗어나려는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이 작품을 창작했다고 볼 수 있다. 종법제도가 공고화되는 18세기에 역으로 새로운 부모상에 대한 열망이 더 강렬했을 수 있고, 작가는 소송이라는 인물을 통해 자애로운 아버지상을 전경화시켰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옥원재합기연〉의 소송은 어머니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부성으로 모성까지도 감싸안으면서 이상적인 부모상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송을 통해 모성과 부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오늘날의 새로운 부성상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실 현대소설에서도 아버지상은 고정된 경우가 많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부성상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은 흔치 않다.<sup>37</sup> 18세기에 엄부의 고정된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자부의 모습을 통해 부성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옥원재합기연〉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오늘날 부각되는 새로운 부성상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존재한다. 기존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도전받을 때 새로운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만들게 되

기연〉의 작자고, 『조선조 연작소설 연구』, 아세아 문화사, 1992) 그 외는 여성작가설을 주장하고 있다.(정병설, 「〈옥원재합기연〉 작가 재론: 조선후기 여성소설가의 한 사례」, 『관악어문연구』 제22권, 서울대 국문과, 1997; 정창권, 「조선후기 장편 여성소설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9; 이지하, 앞의 글(2001); 한길연, 앞의 글(2005)).

35 〈옥원재합기연〉 21권.

36 정병설, 앞의 글(1998); 정창권, 앞의 글(1999); 이지하, 앞의 글(2004).

37 이수정·이승하, 「아버지 상의 사적(私的) 변화 양상—90년대 이후 소설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36권, 한국비평문학회, 2010.

는 것으로, 자상한 아버지와 같이 돌봄을 강조하는 남성성은 여성 권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여성 권리의 침해를 은폐한다는 논의,<sup>38</sup> 부모노릇이 재젠더화되는(regendered) 과정에서 부성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남성화를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낳게 된다는 논의<sup>39</sup> 등이 있다. 하지만, 자상한 부성상은 자녀에게 돌봄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친밀성을 경험하고 경청하며 공감하는 기술을 터득하게 된다는 견해,<sup>40</sup> 돌보는 남성성의 출현으로 남성적 가치가 재구성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실현하는 데 드는 비용은 줄어들고 돌봄으로 인한 혜택은 늘어날 것이라는 견해<sup>41</sup> 등에서 볼 수 있듯, 그 긍정적 측면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어머니에게 일방적으로 짐 지워진 자녀양육을 부모가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다는 점에서 새로운 부성상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맞벌이부부가 증가하는 한편 이혼가정이 늘어나면서 한부모 가정이 일상화되는 현실에서 자상한 아버지상은 시대가 요청하는 남성상으로 호명받고 있는 것이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가 정점에 있었던 조선후기에 <옥원재합기연>에서는 소송이라는 인물을 통해 부성의 새로운 가능성을 선취함으로써,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종법 이데올로기에 따라 가족제도가 경직화된 시대에 오히려 뚜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상한 부성상에 대한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함으로써, <옥원재합기연>은 오늘날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이상적인 부성상을 정립하고 실천해 나가는 데 큰 디딤돌이 되고 있다. 앞으로 고전소설 전반에서 그리고 역사문헌자료에서 새로운 부성의 단초들을 더욱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조선후기 부성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을 보다 정밀하게 고증해 나가야 할

38 D. S. Demetriou, "Connell's concept of hegemonic masculinity: A critique", *Theory and Society* 30, 2001.

39 B. Brandth & E. Kvande, "Masculinity and child care: the reconstruction of fathering", *The Sociological Review*, 46(2), 1998.

40 N. Hanlon, *Masculinities, Care and Equality: Identity and Nurture in Men's Lives*, Houndmills, Basingstoke, Hampshire ;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2.

41 K. Elliott, "Caring Masculinities: Theorizing an Emerging Concept", *Men and Masculinities*, 2015.

것이다.

## 참고문헌

### 기본자료

규장각본 <옥원재합기연> 21권 21책(『필사본고전소설전집』 27-30(김기동 편), 아세아문화사, 1980)

강성숙 역주,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4, 보고서, 2010, 1-634쪽.

\_\_\_\_\_,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5, 보고서, 2010, 1-579쪽.

김경미 외 역주,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4, 보고서, 2006, 1-449쪽.

\_\_\_\_\_,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3, 보고서, 2010, 1-843쪽.

김남이 역주,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7, 보고서, 2010, 1-571쪽.

\_\_\_\_\_,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8, 보고서, 2010, 1-566쪽.

서경희 역주,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6, 보고서, 2010, 1-674쪽.

이경하 역주,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2, 보고서, 2010, 1-889쪽.

정형지 외 역주,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 보고서, 2006, 1-350쪽.

조혜란 외 역주,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3, 보고서, 2006, 1-492쪽.

황수연 외 역주,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2, 보고서, 2006, 1-442쪽.

황수연 역주,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 보고서, 2010, 1-739쪽.

### 단행본

조 형, 「여성주의 가치와 모성리더십」,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1-172쪽.

루이지 조야, 이은정 역, 『아버지란 무엇인가』, 르네상스, 2009, 1-508쪽.

사라 러딕, 이해정 역, 『모성적 사유: 전쟁과 평화의 정치학』, 철학과 실천사, 2002, 1-406쪽.

아드리엔 리치, 김인성 역,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 모성의 신화에 대한 반성』, 평민사, 1996, 1-383쪽.

재클린 로즈, 김영아 역, 『송배와 혐오: 모성이라는 신화에 대하여』, 창비, 2020, 1-307쪽.



- Connel, R. W., *Masculinity and Power*, Oxford: Blackwell, 1989.
- Hanlon, N., *Masculinities, Care and Equality: Identity and Nurture in Men's Lives*, Houndmills, Basingstoke, Hampshire ;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2.
- Haywood, Chris & Maritin Mac an Ghaill, *Men and Masculinities: Theory, Research and Social Practice*, Buckingham: Open University, 2003.
- Dermott, Esther, *Intimate Fatherhood: A Sociological Analysis*, London·New York: Routledge, 2008.

## 논문

- 강혜선, 「사대부 남성의 눈으로 본 17세기 여성의 삶과 생활, 그 정형성과 다양성: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보고사, 2006)」, 『한국문화연구』 제11권,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6, 427-438쪽.
- 김미라, 「TV매체에 재현된 새로운 남성성(masculinity)과 그 한계—주말 예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한국콘텐츠학회, 2014, 88-98쪽.
- 김서운, 「〈완월회맹연〉에 나타난 천상계의 특징과 의미: 모자 관계 형상화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68권, 한민족어문학회, 2014, 361-390쪽.
- \_\_\_\_\_, 「〈임씨효문청행록〉의 모자 관계 형상화 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제41권, 한국고소설학회, 2016, 275-309쪽.
- 김정미·김은주, 「조선후기 아버지의 자녀양육과정을 통해 본 돌봄 담론 분석: 한문학 사료를 중심으로」, 『교육사상연구』 제34권 3호, 한국교육사상학회, 2020, 1-26쪽.
- 나성은,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신 도구적’ 부성의 구성」,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14, 1-197쪽.
- 박미해, 「16세기 양반가의 가족관계와 가부장권」, 『고문서연구』 제21권, 2002, 51-73쪽.
- 박영희, 「장편가문소설에 나타난 모(母)의 성격과 의미」, 『한국고전소설과 서사문학』 상(양포 이상택교수 환갑기념논총), 집문당, 1998, 263-282쪽.

- 양민정, 「18세기 후반 대하장편가문소설의 한 유형적 특징—〈옥원재합기연〉, 〈옥원전해〉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제5권, 일지사, 1994, 52-105쪽.
- 엄기영, 「〈옥원재합기연〉의 작품세계와 연작관계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1, 1-77쪽.
- 이동옥, 「아버지 양육 담론의 한계와 대안적 부성」, 『젠더와 문화』 제7권 2호,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14, 174-180쪽.
- 이수정·이승하, 「아버지 상의 사적(私的) 변화 양상—90년대 이후 소설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36권, 한국비평문학회, 2010, 191-220쪽.
- 이은경, 「〈완월회맹연〉에 나타난 어머니의 양상과 의미」, 『개신어문연구』 제21권, 개신어문학회, 2004, 149-181쪽.
- 이지영, 「조선시대 장편한글소설에 나타난 ‘못된 아버지’와 ‘효자 아들’의 갈등」, 『고소설연구』 제40권, 한국고소설학회, 2015, 83-109쪽.
- 이지하, 「〈옥원재합기연〉 연작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1, 1-188쪽.
- , 「여성주체적 소설과 모성이데올로기의 파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9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137-168쪽.
- 장시광, 「대하소설의 여성반동인물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4, 1-202쪽.
- 정병설, 「〈옥원재합기연〉 작가 재론: 조선후기 여성소설가의 한 사례」, 『관악어문연구』 제22권, 서울대 국문과, 1997, 317-332쪽.
- , 「〈옥원재합기연〉의 여성소설적 성격」, 『한국문화』 제21권,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8, 45-62쪽.
- 정선희, 「17·18세기 국문장편소설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연구」, 『한국고전연구』 제21권,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169-200쪽.
- 조동일, 「한국고전소설에 나타난 부자(父子) 갈등」, 『일본연구』 제15권, 한국의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00, 105-113쪽.
- 조윤경, 「조선중기 재지사족 가문 아버지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검토」, 『인문학연구』 제82권,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191-213쪽.
- , 「‘아버지 자녀 양육서’에 내재한 젠더 질서—‘아버지됨’과 ‘근대적 남성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제22권, 부산대 여성연구소, 2012, 35-72쪽.

- \_\_\_\_\_,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동과 아버지 양육의 변화」, 『한국융합인문학』 제 2권 1호, 한국융합인문학회, 2014, 83-112쪽.
- 조한혜정, 「여성 정책의 실질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론」, 『한국 여성 정책의 뉴 패러다임 정립』, 여성부, 2004.
- 조혜란,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가장권(家長權) 행사의 문제」, 『한국고전여성 문학연구』 제30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5, 155-184쪽.
- 탁원정, 「국문장편소설 〈완월회맹연〉 속 아버지 형상과 그 의미—자식의 혼사 과정에서 보이는 성향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45권,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5-32쪽.
- 최길용, 「옥원재합기연」의 작자고」, 『조선조 연작소설 연구』, 아세아 문화사, 1992.
- 최호석, 「〈옥원재합기연〉에 나타난 윤리적 갈등」, 『고소설연구』 제15권, 한국고소설학회, 2003, 117-138쪽.
- 한길연, 「대하소설의 의식성향과 향유층위에 관한 연구—〈창란호연록〉·〈옥원재합기연〉·〈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1-276쪽.
- \_\_\_\_\_, 「장편고전소설에 나타나는 어머니의 존재방식과 모성」, 『한국고전여성 문학연구』 제14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223-226쪽.
- \_\_\_\_\_, 「18세기 문제작 〈옥원재합기연〉 연작의 재해석—‘타자의 서사’와 ‘포월의 미학’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제48권, 한국고전문학회, 2015, 331-366쪽.
- \_\_\_\_\_, 「대하소설에 나타나는 부모-자녀 관계 연구—잘못한 자식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제189권, 국어국문학회, 2019, 269-303쪽.
- 홍현성, 「〈보은기우록〉 속 아버지 모습과 문제적 부성(父性)의 의미」, 『돈암어문학』 제32권, 돈암어문학회, 2017, 107-132쪽.
- Brandth, B. & Kvande, E., "Masculinity and child care: the reconstruction of fathering", *The Sociological Review*, 46(2), 1998.
- Elliott, K., "Caring Masculinities: Theorizing an Emerging Concept", *Men and Masculinities*, 2015.

Pleck, J.H., "American Fathering in Historical Perspective", Ed., M. Kimmel, *Changing Men: New Directions in Research on Men and Masculinity*, NewburyPark: SAGE, 1987.

## Abstract

A Study on Relationship of Parents and Children in River-novels(2)  
-New Possibility of Fatherhood Seen through *Okwonjaehapkiyeon*-

Han Gilyeon

In this paper, I tried to explore new possibilities for 'fatherhood' through the character 'Sosong' in *Okwonjaehapkiyeon*(玉鶯再合奇緣) created in the 18th century. These days, when the debate is divided over whether fatherhood and motherhood are innate or acquired, a new generation of intimate fatherhood such as friendly father, new father, and androgynous father is emerging breaking away from the stereotyped image of 'strict father and loving mother'. This shows that the fatherhood and motherhood can be changeable with the times.

However, Sosong of *Okwonjaehapkiyeon* is significant because he already embodies this new fatherhood image in the 18th century when the code of clan regulation was consolidated. Just as a mother raises a child, Sosong practices self-sacrificing love after his wife died, show a relation oriented attitude to his children through horizontal empathy and communication, and takes care of all family members, including children, daughters-in-law and grandchildren. This is due to a special situation in which Sosong has involved the motherhood as a father while staying alone after his wife died. However, *Okwonjaehapkiyeon* is problematic in that unlike duke Lee Mun-jeong as a strict father, Sosong, the loving father, is portrayed in a much more positive way. Furthermore, *Okwonjaehapkiyeon* clearly shows the longing for a new parent image by portraying female figures who are out of the conventional wisdom of motherhood of the time.

Nowadays, the fact that the fatherhood and motherhood are not stuck in a 'complete form' but are in a 'progressive type' that changes with the times is gaining traction. In this reality, *Okwonjaehapkiyeon* has already won a new fatherhood aspect in the late Joseon Dynasty, setting a foothold for establishing an ideal paternal image in today.

Key words: river-novel, *Okwonjaehapkiyeon*(玉鶯再合奇緣), fatherhood, motherhood, new father, intimate fatherhood

본 논문은 2020년 11월 17일에 접수되어 2020년 11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0년 12월 2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